



## 가장 짧은 시간 속에서

범서고 3-2 강다영

살아가면서 가장 짧게 머문 시간, 새벽을 누리기 시작한 열다섯. 나는 혼자였다. 사람들에게 쉽게 말 붙이지 못하는 성격과 사회를 마비시킨 전염병이 겹쳤을 때이니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당시의 난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기에 오히려 나의 세상은 넓어지기 시작했다. 지극히 혼자가 되어 숨으면 나타나는 지나친 솔직함은 나의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깨웠다. 그래서 펜을 들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한 혼자의 순간이었다.

주로 소설을 많이 썼다. 다른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됐다면 어땠을까?’ 싶어 나아간 덧붙인 이야기에서 출발해, 같은 장르와 비슷한 세계관에 뿌리를 둔 나의 다른 이야기들. 열여섯 끝자락에 다다랐을 즈음에는 나만의 세계를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비록 혼자였지만 여럿으로 나누어지고 살이 붙어 수많은 사람이 되었다. 가장 조용하고 정지된 바깥과는 다르게 내 머릿속만은 인파 속에 묻혀 그들의 깊은 내면과 대화를 나누는 무척 활발한 순간이었던 듯싶다.

‘언제나처럼’이라는 말은 아주 어리석은 말일지도 모른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맞이하게 된 너무나 강렬했던 변화는 내가 ‘언제나처럼’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변화는 다름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었다. 내가 홀로 찾고 탐구하던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 만지고 볼 수 있는, 각자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래의 타인들. 그 새로운 친구들은 굳게 잠긴 나 혼자만의 시간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개성 있는 세상을 맛보게 된 나는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새벽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다. 몇몇 친구들에게는 내가 써 온 습작들을 보여 주며 그들의 칭찬과 기대에 힘입어 계속해서 나의 이야기들을 확장시켰다. 온전한 고요의 새벽을 잃었을지라도 정말 즐겁고 행복했다. 그러나 행복했던 시간들은 되레 과격할 변화를 일으키고 말았다.

열여덟의 시작, 달콤하고 꿈같은 세계를 영위해 오고 있을 무렵이었다. 어느 때처럼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려던 새벽녘이었다. 나는 독립심이 강해 자유를 찾아 떠나는 새로운 인물을 구상 중이었고, 그 인물을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내려가다가…… 찰나의 순간에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나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는가? 어떤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시기는 내가 친구들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해진 동시에 가정에서 내게 요구하던 길로 인해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나는 고작 질문 두 개로 큰 충격에 빠졌다. 타인과 있을 때의 나와 혼자 있을 때의 나 사이에서 극심한 괴리를 느낀 것이었다. 타인, 그러니까 가족들과 친구들의 세상을 겪으면서도 나는 그들과 정서적으로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있다 여기었건만, 어느새 그들의 작은 잔소리 하나에도 자신을 잃고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리는 내가 있었다. 창작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솔직해질수록 내가 마주하는 것은 줄곧 믿어 온 혼자만의 세계를 잃어버린 나였다.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 행복했

던 시간을 내심 그리워하며, 결국 나는 자신을 회피하는 길로 빠지게 되었다.

새벽은 두려운 시간이었다. 너무 고요한 탓에 자꾸만 내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 시간이 무서웠다. 소음이 필요했고, 사람이 필요했다. 일차원적인 오락의 쾌락만이 나의 생각을 마비시킬 수 있었다. 나는 밤과 새벽이 되면 놀 친구를 찾았다. 그리고 꽤 자주 그들을 만나러 나갔다. 친구를 만나 하는 일이라고는 아파트 단지 돌며 산책하기, 놀이터 그네 타기, 24시간 카페에 앉아 시험공부하기처럼 의미 없고 소모적인 것들이었다. 그때 참 많이들 내게 물었다. 왜 이렇게 활발해졌냐고. 그건 활발한 것이 아니었다. 혼자 새벽에 남겨지는 것이 끔찍이 싫어 필사적으로 회피할 뿐이었다. 머지않아 폭주를 멈췄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성정은 습관이 되어 머물렀다.

우습게도 나의 회피를 멈추게 한 것은 내가 열심히 두려워하던 새벽의 어느 날이었다. 생각하지 않기 위해 강박적으로 붙잡고 있던 나의 사람들과 떨어진 것도 모자라 집중할 일도 없던 짧은 몇 시간, 나는 잠에 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불안으로 요동치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차분한 음악을 틀어놓고 정자세로 누워 눈을 감았다. 역시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깊은 생각의 굴레로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 어쩐지 그날은 너무 지쳤던 탓인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싶었다. 나는 나에게 대해 생각했다. 탐구하고, 연구했다. 아무래도 나 자신이 부끄러워 견디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순간의 결정들이 삶을 뒤흔들어 놓듯이, 이번에도 어떠한 생각이 뇌리에 스쳤다. 이런 나를 하나의 소셜 속 인물로 투영하면 어떨까? 아주 간만에 떠오른 새로운 생각이었다.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그대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난 뒤, 오랫동안 덮어 두었던

아이디어 노트를 펼치고, 최근 접속일이 거의 일 년 반 남짓한 소셜 폴더를 노트북에 띄웠다.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복잡하게 충돌하는 나의 마음들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차근차근 적어 내려가다 보니, 이내 여럿의 새 인물이 나왔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어마무시한 분량의 방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혼자 새벽을 꼬박 다 세운 것이 까마득할 만큼 간만이었다. 그 날의 새벽, 나는 다시금 새벽이 주는 솔직함의 기쁨과 맞닿으며 나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했다. 그것도 나를 담은, 나를 닮은 사람들을 담은.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평온한 고독의 새벽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이 가장 두려운 것으로 변했다가 그 사이에서 중립을 이루기까지가 절대 짧지만은 않았다. 어쩌면 시기적절할…… 조금은 뒤늦은 사춘기였을지도 모른다. 사실 지금도 이 시기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모두 내가 열다섯일 때부터 현재의 열아홉이 되어 오며 겪은 성장들이다. 새벽을 되찾은 지 몇 달이 채 되지 않았다. 다행히 오늘까지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편안한 새벽을 누렸다. 하지만 항상 ‘언제나처럼’ 살아갈 수 없으니 나는 알지 못한다. 내일의 새벽은 오늘과 어떻게 다를지. 조만간 들이닥칠 엄청난 환경의 변화는 나의 새벽을 어떻게 바꿀지.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성장을 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나날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유일한 것은 순간에 몰두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 지나치게 솔직해진 자신에게 묻는 거다. 오늘은 어떤 세계를 만들었는지. 그러면 나는 나에게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삶에서 가장 짧은 나의 시간 속에서.